

3. 할머니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더 맹종형으로 양육되었으나 적극적 거부형에서는 오히려 할머니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서 높은점수를 나타냈다.

4. 할아버지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더 박애형과 맹종형으로 양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농촌거주 어머니도 도시거주 어머니보다, 더욱더 거부적이며 모순형과 불일치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교급식이 국민학생들의 신장 및 체중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

청주 전문대 논문집 제8집, 1982.

홍 영 희

충북 청주시내의 실험급식학교 “A”와 비급식학교 “B”의 6학년 1학급(남자 : 30명, 여자 : 3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이 국민학생의 신장 및 체중에 미친 영향에 관한 조사결과는 5·6학년에서 실시되는 완전급식의 학교급식이 신장, 체중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학생의 초경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1983.

김 미 화

서울시내 여자중학생 732명을 대상으로 198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로서 초경연령 및 초경시 심리상태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초경상태를 보면, 초경을 경험한 학생수는 503명으로 68.7%로 나타났다. 연령별 초경경험율은 12세 이하의 군에서는 37.8%, 13세에서는 62.1%, 14세에서는 80.6%, 15세 이상의 군에서는 95.5%가 나타났다.

2. 초경 경험자의 초경 연령분포는 12세가 37.4%로 가장 많고, 13세가 34.4% 11세가 15.3%, 14세 8.9%의 순이다.

평균 초경 연령은 12.3세이다.

3. 각 변수별로 초경, 연령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보면

1) 가정 경제상태별 초경 연령은 상류생활에 속한 학생이 중류나 하류에 속한 학생보다 초경 연령이 빠른 경향을 보여 초경 연령은 가정 경제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어머니의 교육 수준별 초경 연령은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자녀의 초경 연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기 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가정경제, 문화, 생활수준과 관계를 가지므로써 자녀의 초경 연령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 및 생활관심 정도별 초경 연령은 초경 경험이나 연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4) 가정에서 성에 대한 개방 상태인 부모와의 성에 대한 대화정도는 초경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어머니의 초경 연령에 따른 자녀의 초경 연령은 어머니의 초경 연령이 빠르면 자녀의 초경 연령이 빠르고, 어머니의 초경 연령이 느리면 자녀의 초경 연령이 늦어 어머니의 초경 연령과 자녀의 초경 연령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6) 신체충실지수별 초경 연령은 신체충실지수 D. E. 즉, “뚱뚱하다”에 속하는 학생이 초경이 빠른 경향이 있고, 신체충실지수 A, B 즉 “마른편이다”에 속하는 학생이 초경이 늦는 경향이 있어 신체충실지수가 초경 연령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5. 초경시의 심리상태는 전체 조사대상 중 68.2%에서 1개이상의 자각증세를 느꼈으며, 수치감이 평점 5.63으로 가장 크고 공포감, 정서불안정, 만족감, 불쾌감, 우울증, 행동의 과격, 열등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죄책감이나 도피증은 소수이지만 여학생들이 초경시에 보인다고 나타났다.

1) 초경 연령에 따른 초경시 주요 심리상태 5가지를 보면, 수치감, 공포감, 정서불안정, 불쾌감은 초경 연령이 빠른 층에서 많이 나타난 반면, 만족감은 초경연령이 늦은 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2) 초경시와 월경시의 심리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 느끼는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심리상태 종류에는 변화가 없어 초경시의 심리상태가 월경때마다 재경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초경에 대한 학교 교육의 현황을 보면

1) 초경에 대한 지식습득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평점 5.88로 가장 많고, 어머니 또는 가족, 친구가 비교적 높고, 책이나 잡지, 자기경험, 영화, TV, Radio의 순이다.

2) 초경시에 생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논상대는 어머니, 가족이 평점 6.02로 가장 높고, 책이나 잡지,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스스로 처리한다. 친구, 선생님의 순이다.

3) 초경에 대한 학습시기는 국교 6학년 43.2%로 가장 높고, 중학교가 34.6%, 국교 5학년이 18.2%의 순이다.

4) 학습과목은 특별활동이 46.0%로 가장 높고, 가정 33.4%, 체육 16.5%, 과학

이 4.1%의 순이며, 학습후 이해정도는 “조금안다”가 35.4%로 가장 높고 “들은 적은 있으나 모른다”가 32.9%, “잘 알고 있다”가 22.8%, “전혀모른다”가 8.9%의 순이다.

여고생들의 건강관리 실천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연구

조선의대 논문집 제11권 제1호, 1983.

김인숙 · 조혜영 · 김송자

본 연구는 학생들의 건강관리 실천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지식,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상태, 경제상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1985년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였으며 남원에 위치한 여자고등학교 학생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 P. S. S. Program에 의해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Pearson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 실천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영역별로 건강관리 실천의 정도를 평점으로 평가한 후 평점의 최대평점에 대한 비율로 조사한 결과 정신건강이 49.1%로 가장 높았고, 사고예방 33.1%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건강관리 실천의 전체 평점에 대한 비율은 41.6%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2. 제1가설인 “건강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관리 실천도는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r=0.4507$, $p=0.000$).

3. 제2가설인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관리 실천도는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r=0.5784$ $p=0.000$).

4. 제3가설인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좋으면 좋을수록 건강관리 실천도는 높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r=0.1331$ $p=0.002$).

5. 건강관리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건강관리 실천을 33.5% 설명하고 있고($R=0.57842$, $R^2=0.33458$, $F=129.77223$), 건강지식이 더 첨가되면 42.4% 설명이 가능하였고($R=0.65078$, $R^2=0.42351$, $F=94.4003$), 건강상태가 더 첨가되면 43.0% 설명이 가능하였다(r